

2025학년도 1학기 글말교실 소감문



침묵 속에서 피어나는 진짜 소통

이름	노예지
전공	정보보안암호수학과
학번	20232088
참여 프로그램	☐ 1-on-1코칭 (담당교수) ☒ 글말특강 (7 회차)

말을 잘해야 한다는 강박은 언제부터 내 안에 자리 잡았을까. 모임에서 어색한 침묵이 흐르면 내가 먼저 말문을 열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들었고, 누군가 말이 없으면 불편해하며 그 공백을 채우려 애써왔다. 그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건 놓치고 있었음을, 이번 특강 <침묵으로도 가능한 소통>을 통해 비로소 마주하게 되었다.

“말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다.” 이 간단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는 내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선택이며, 때로는 말보다 더 강한 설득력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특히 '물왕저수지' 시를 통해 표현된 발효의 침묵은 내 마음속 오래된 슬픔과 분노, 부끄러움을 정화시켜주는 듯했다. 썩은 감정을 말로 풀어내기보다, 스스로와 침묵 속에서 소화해내는 태도야말로 내가 지금 배우고 실천해야 할 진정한 소통의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특강 중 “말을 하면, 들을 수 없다”는 문장이 특히 마음에 남는다. 나는 내 이야기만 전하려고 했지, 정작 타인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노력은 부족했다. 내가 말을 멈췄을 때 비로소 들리는 소리가 있다. 내 감정의 떨림, 상대의 속마음, 우리 사이의 거리감. 이처럼 침묵은 나와 타인 사이에 존재하는 '간격'을 인식하게 하며,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한 섬세한 배려의 시작점이 된다.

또한 '말은 적게, 침묵은 많이'라는 조언은 단순히 말을 줄이라는 의미가 아니었다. 말보다 더 큰 영향력을 지닌 침묵의 힘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관계에서도, 삶에서도 강자라는 것을 실감했다. 친구, 가족, 동료들과의 갈등 대부분도 결국은 말을 줄이지 못해 생겨났음을 떠올렸다. 앞으로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판단도, 조언도, 반박도 잠시 접어두고 그저 귀를 열어두는 태도를 갖고자 한다.

이 특강은 단순히 소통에 대한 이론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내 삶을 조용히 되돌아보게 만든 시간이었다. 침묵 수행, 침묵 대화, 비움의 태도 등 모든 개념이 지금의 나와 너무 닮아 있었다. 말이 너무 많았기에 때로는 관계가 무너졌고, 침묵하지 못했기에 오히려 나의 진심이 전달되지 못한 순간들이 떠올랐다.

앞으로 나는 말보다 마음을 먼저 읽는 사람이 되고 싶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고, 침묵의 여백 속에서 타인의 감정과 나의 내면을 함께 들여다보는 용기를 지닌 사람이 되고 싶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소통'의 시작이고, 인간다운 관계의 회복이 아닐까.

이번 특강은 내게 있어서 소통의 개념을 완전히 뒤흔든 경험이었다. 말하지 않는 순간,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이 단순한 진실을 깨달은 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큰 선물을 받은 셈이다. 이제 그 선물을 실천으로 옮길 차례이다.